본 세미나는 (사) 정보경영연구원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

오래가는 변화를 위해 지금 정치가 해야 할 것들

- 조성주 정치발전소 이사장(전 정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)

한국정치의 현재

▶ 극단화 되고 있는 정치양극화(팬덤정치, 정체성정치)

▶ 강한 국가 - 약한 사회 - 약하지만 큰 두 정당

▶ 책임정치 영역의 실종(주요 양당의 극단화)

▶ 상대를 타도, 절멸 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지지자들간에 강화(센 목소리들이 다른 목소리들을 제압하는 현실)

▶ 평범한 보통시민들의 목소리는 실종되는 가운데 한국형 포퓰리즘의 등장 가능성

*포퓰리즘 : 포퓰리즘이란 인기있는 대중영합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. 포퓰리즘은 세상이 부패한 기득권과 순수한 민중으로 양분되어 있다고 보는 이념. 따라서 오른쪽 왼쪽에 걸쳐서 발생하며 권위주의와도 결합

▶ 진보정치의 경우 정체성 정치와 계급정치 사이의 교차지점을 찾지 못하며 방황

공론장의 피폐화, **정치의 무책임성**

- **‘정치양극화(팬덤정치)’와 ‘정체성 정치’로 인한 문제점은 공론장의 피폐화**
- ‘이견’이 경쟁하는 곳이 아**닌** ‘이견’을 색출하고 처벌하는 곳**으로** 공론장이 **변화**
- 공론장을 독점하려는 욕망, 혼란속에서 공론장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
- ‘대등해지려는 욕망’이 ‘지배하려는 욕망’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 견제?
- “적나라한 갈등을 드러내는 것만으로는 안된다. 이것을 넘어서 함께 논의 될 수 있는 ‘이견’으로 다루어질 때 우리 사회와 공동체가 성숙된다” - 조반니 사르토리 **(이탈리아 정치학자)**
- **현재 한국정치는 정치인이 유튜버처럼 활동하며 자극적인 소재를 쫓는 모습으로 전락**

승자독식(?) 정치 - 타락의 유혹, 몰락의 공포

- <승자독식>이라고 하나 아무리 선거를 크게 이긴다고 하더라도 결국 상대정당보다 30-50석 정도를 더 가져가는 현재의 선거결과 그러나 의석수는 정치의 조건에 불과. 의석수를 가지고 원하는 정치적 결과를 낼 수 있어야 진정한(?) 승자독식이라고 말할 수 있음의석수를 많이 가진 쪽이 원하는 의제 추진 – 불가능
- 아이러니하게도 의석수가 많이 필요한 이유는 본질적으로 원하는 의제를 추진하기 위함인데 의석수를 크게 독점하면 할수록 원하는 의제를 추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음
- 마치 '승자의 저주'와도 같은 것인데 현재의 극단적인 양당제 구조에서는 선거에서 패배한 쪽은 오로지 '비토'하는데에 열중하기 때문임
- 승자가 많은 의석을 가져가면 갈수록 상대를 절멸시키기가 불가능, 패배한 쪽의 위기감은 더 커지고 극단적인 논리와 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어. 무리수를 두게 됨
- 정치적 성과를 내어 득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상대의 표를 감소

‘제왕적 대통령제’의 문제 - 반정치의 정치

의회정치, 정당정치에서 극단적 대결구조가 반복되기때문에 대통령의 경우는 대부분 ‘반정치(반의회)’를 외치며 대통령 권력(행정부 - 관료)으로 개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짐(박근혜, 문재인, 윤석열 정부) 이러한 유혹은 한국 특유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맞물려 더 문제를 심화시킴

민주주의 정치는 미묘한 것이어서 ‘**대통령**’에 권력이 집중될수록 실제 사회변화를 만드는 힘은 약화됨 : 갈등의 강도만 강해질 뿐 정작 갈등의 규모는 크지 않아 이슈의 휘발성은 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시민들의 이해관계도의 깊이는 떨어짐. **실제로 중요한 개혁성과는 여당이 소수일때 일어남**

우리는 ‘선’이고 저기는 ‘악’이라는 진영논리의 강변이 아닌 사안과 이슈에 따라 협력하는 ‘연정’과 ‘협력’의 정치 활성화 : 이를 위해 ‘**대통령**’ 권력을 줄이고 ‘의회’를 중심으로 하는 권력체계로 지향

진보정치가 마주하고 있는 쟁점들

▶ 한국의 진보정치(정당)의 이념은 무엇인가? 사민주의?, 탈자본주의?

▶ 진보정당의 미래사회비젼은 무엇인가? 복지국가?, 탈자본 생태사회주의?

▶ 정체성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? 젠더, 퀴어 등, 계급정치가 더 우선되어야 하나?

▶ 한국의 노동계급은 누구이고 무엇인가? 정규직 VS 비정규직, 기업규모별 격차

▶ 민주당, 국민의 힘과 진보정당의 관계는? 다수의 진보정당끼리의 관계는?

※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 볼 필요가 있음 : 진보정당의 세계관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른가? - 87년 민주화 이후 만들어진 '巨惡'의 세계관

한국의 '진보진영'은 '노동'을 어떻게 인식하는가?

'80년대' 정서 : "저기 불쌍한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고 지식인들은 그들과 함께 해야 한다"

- 이러한 사고로는 급변하는 산업과 노동시장의 변화, 노동시장 내부의 격차와 갈등, 세대간 갈등과 격차를 담아내기 어려움

- 이러다보니 진보진영내 왼쪽(정의당 + 민주당 비주류)에서는 '대안과 변화'를 시도하지 않은채 여전히 '불쌍한 노동자'를 옹호하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고 오른쪽(민주당 주류)에서는 '더이상 불쌍하지 않고 이기적인 노동자'들의 문제에 집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됨

- 노동문제를 다루는 인식을 변혁을 위한 '노동자계급'을 조직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에서 노동하는 시민을 조직하고 연대한다는 개념으로 바꾸어야

- 이를 통해 산업변화, 노동시장의 격차와 변화 등에 대해서 단순히 조직화된 노동자집단을 옹호하는 것을 넘어 대안을 가지고 시민들을 설득해나가야 함

- 한국이 유난히 노동과 산업, 경제, 복지 등의 과제가 한데 묶여서 전략적으로 고민되지 않는 이유

인천공항공단 무기계약직-**정규직 전환 논란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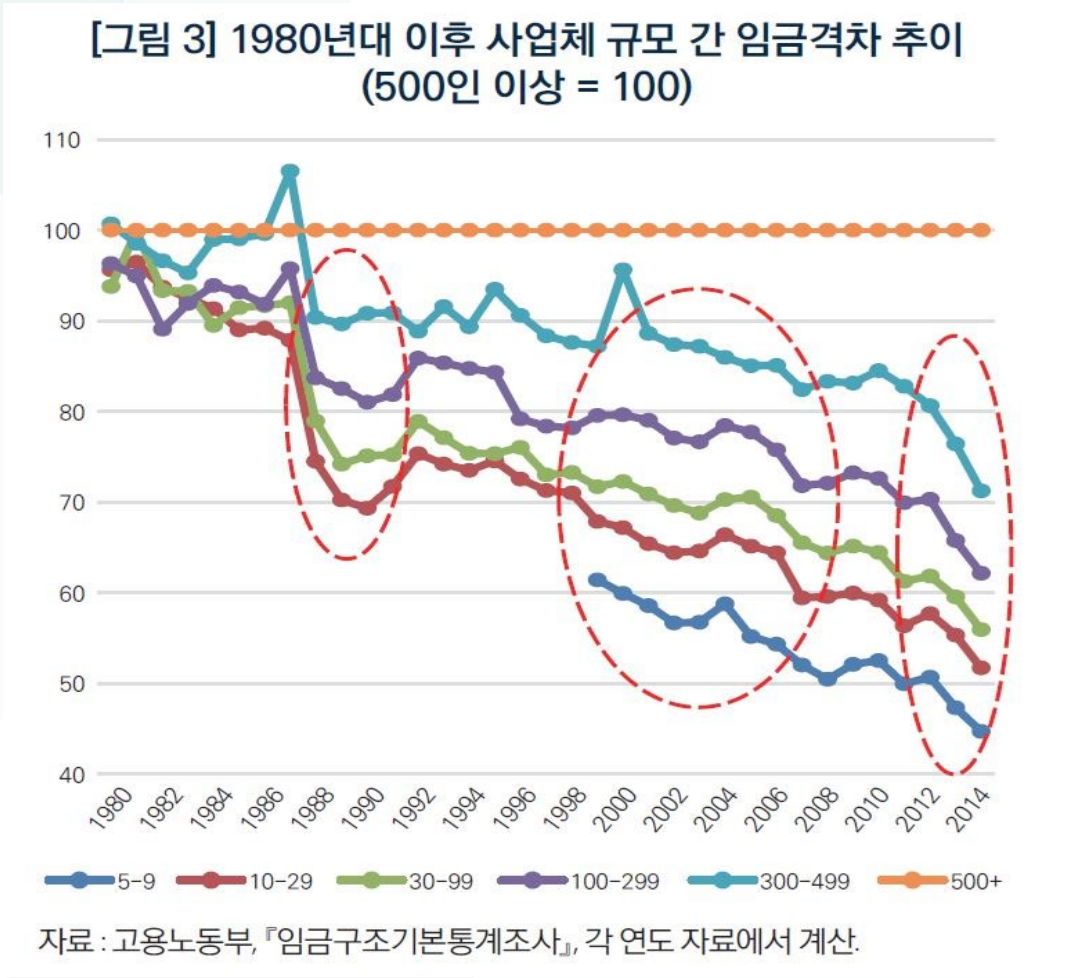
▶ 인천공항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반발과 이어진 논쟁은 사실 이전에도 징조가 있었음

① 서울시 교통공사 무기계약직 전환 논란 : **당시 서울시에서 1,000명의 무기계약직을 정규직 전환하려 했으나 젊은 세대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강력하게 반발**

② 2018 평창 올림픽 남북단일팀 논란 : **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서 남북간에 하키 단일팀 구성 논의하였으나 한국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'공정'하지 못하다며 강력 반발**

▶ **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 논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'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'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** : **고용형태별 격차보다 기업규모별 격차가 더 크며 이것이 세대간에도 차이를 발생시키는 구조**

기업규모별 격차와 민주주의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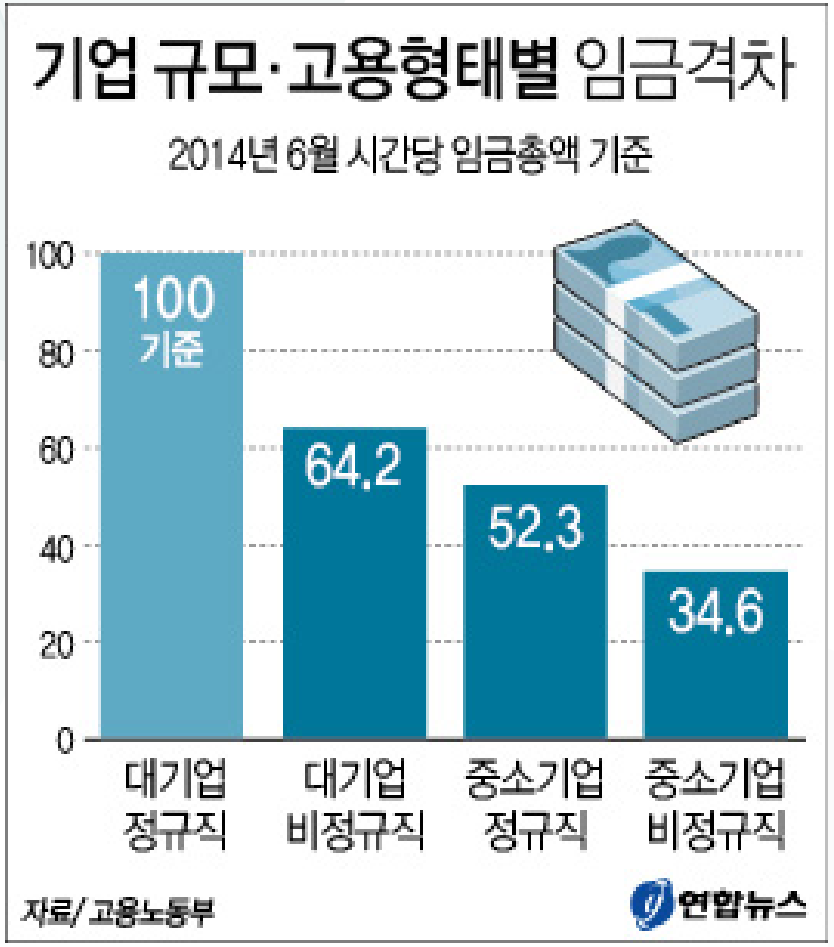
- **1980년대 초반만 해도 10~29인 기업 근로자의 임금은 300인 이상 기업 근로자의 임금의 90%**에 달함. 10%도 되지 않았던 대-중소 사업체 간 격차는 **2010년대 중반이 되면서 50% 내외**에 이르고 있음

- 3번의 변곡점: 1987년 대기업 노동조합 결성, 1997년 외환위기, 2010년 이후 능력주의와 경쟁강화

- 한국정치의 변화와 연관지어 생각해보아도 흥미로울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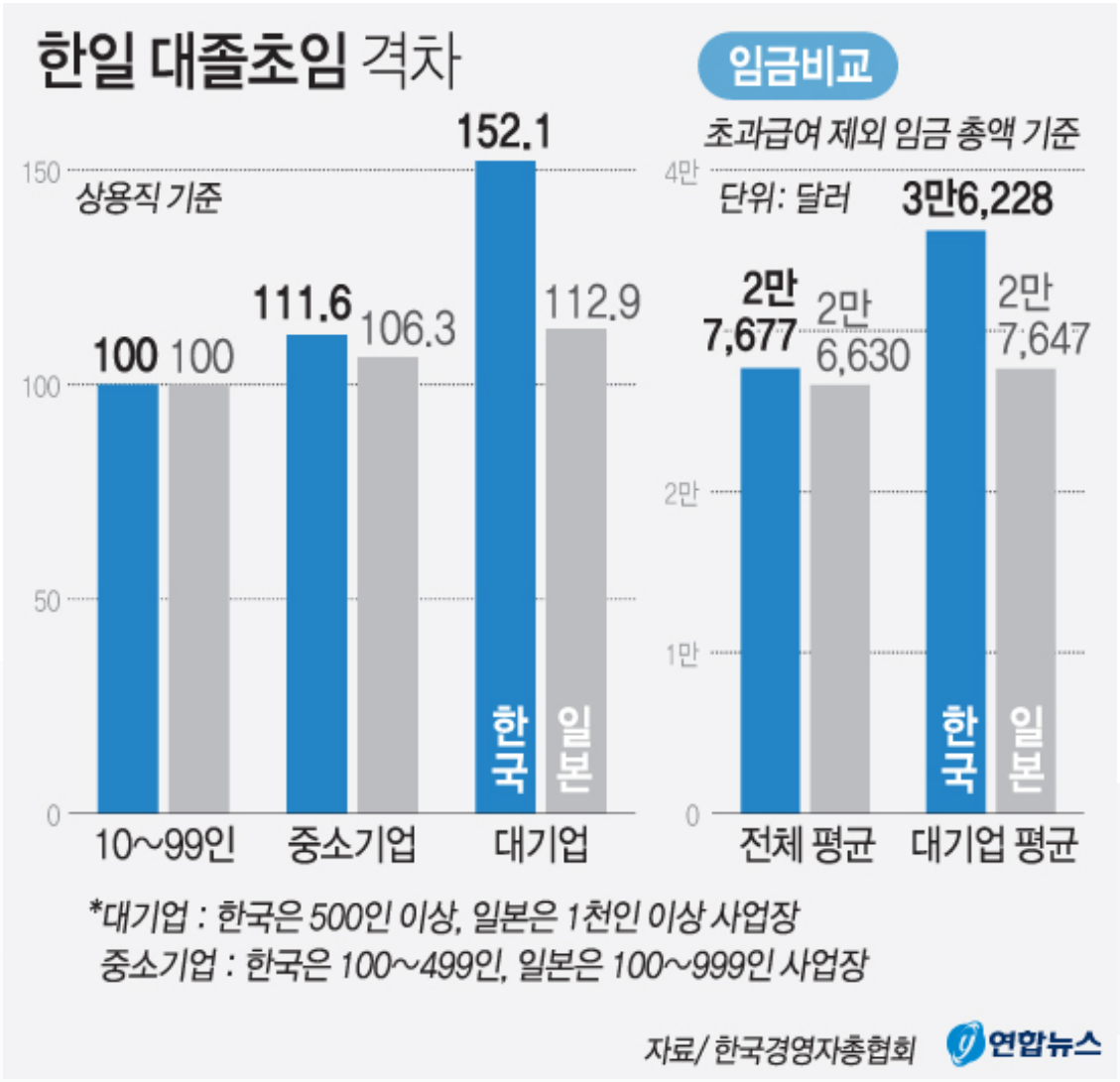
출처: 조성재, 노사관계 시스템의 전환과 노동정책 과제, 2017

한국의 '노동시장 이중구조', 분단국가 대한민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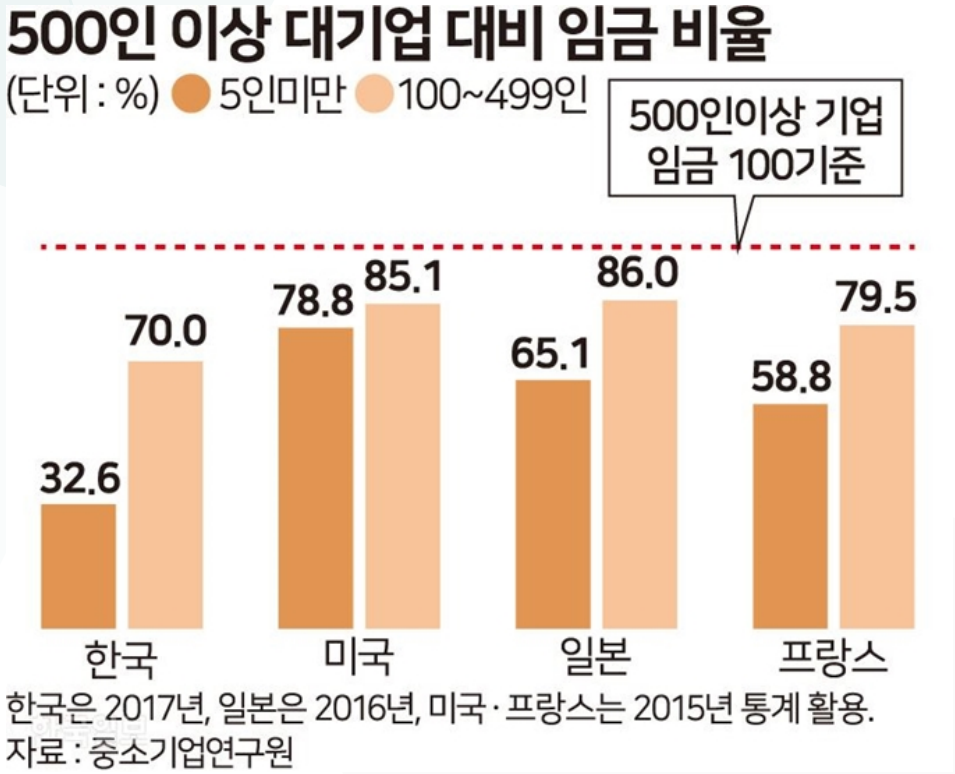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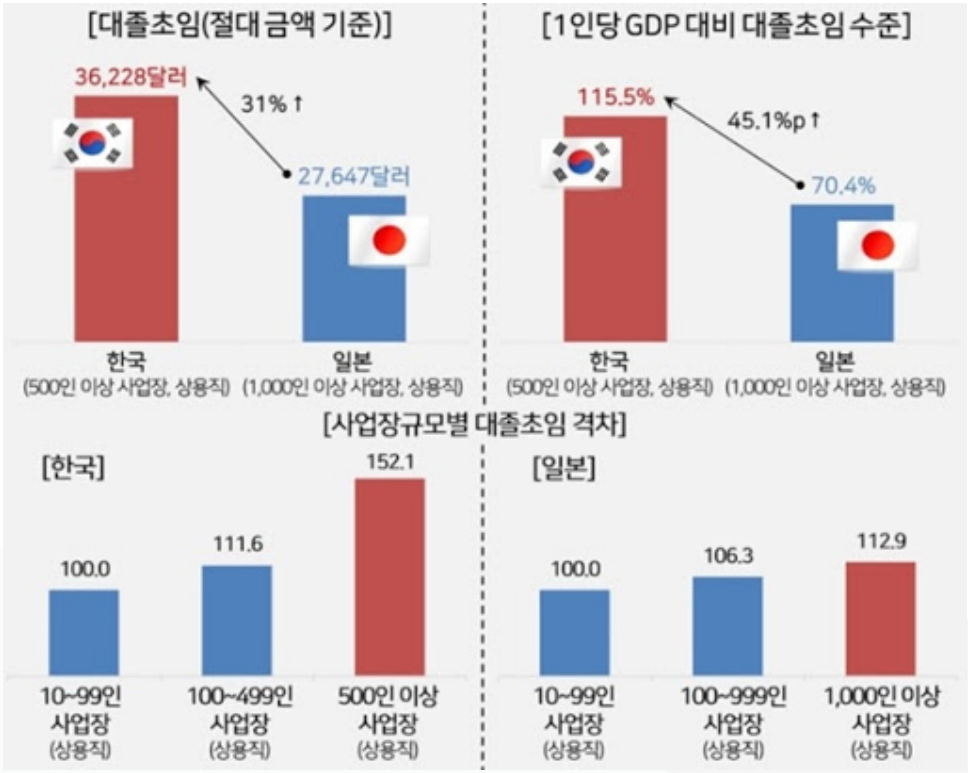
나누리 인턴기자 / 20160428

트위터 @yonhap_graphics, 페이스북 tuney.kr/LeYN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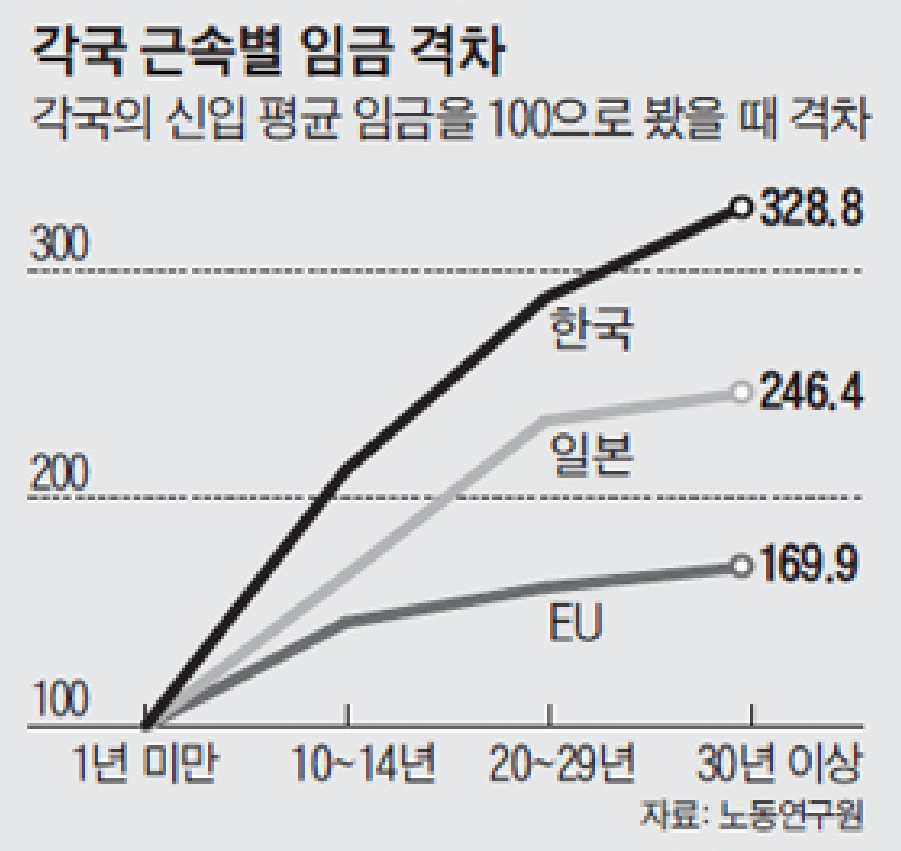


한국의 '노동시장 이중구조', 분단국가 대한민국





한국의 '노동시장 이중구조', 분단국가 대한민국



[표2] 2019년 조합원 규모별 노동조합 조직 현황(고용노동부)

조합원 규모	노조수	조합원수	조합원수 비중
30명 미만	2,505개	28,407명	1.1%
30~99명	1,720개	96,814명	3.8%
100~299명	1,102개	184,488명	7.3%
300명 이상	826개	2,221,072명	87.8%
합계	**6,153개**	**2,530,781명**	**100.0%**

노동을 둘러싼 새로운 쟁점

▶ 노동을 둘러싸는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

- **‘노동자’는 누구인가?** 근로기준법상 노동자? 피고용인? Employee? Worker? Independent contractor?
- **‘해고는 살인이다!’** 단기 계약직이나 플랫폼 노동자는 예수인가?
- **‘진짜 사장 나와라!’** 그런데 왜 사장이 있어야만 노동자인가?
- **무엇을 노동조합이라 부를 것인가?** 기업별, 산업별 노조가 늘 대안이 될까?
- 노동 역시 사회적인 변화들에 따라 규제되고 조정될 것

<신냉전시대>의 도래와 남북관계 및 동아시아

작금의 <신냉전 시대>에서 남북관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?

<권위주의 VS 민주주의> 이렇게 보면 중국, 러시아, 일본, 미국, 대만은 각각 어디에 위치하나?

'남북관계'는 남북만이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, 중국, 일본과의 국제정치외교를 기본으로 하면서 갈 수 밖에 없음.

진보의 전통적인 한일관계, 남북관계, 한미관계, 한중관계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힘이 동아시아에 형성된 신냉전 구도를 넘어서 상황을 리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과도한 인식이 있었음. 북미관계의 극적인 타결이 한반도에 특별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순진한 사고도 있었다고 할 수 있음

따라서 낭만적 급진주의 정서를 넘어서 진보진영의 현실주의적 인식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.

이미 남과 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음